

5월 광주 다룬 1인극 '애꾸눈 광대' 주역 이지현·신동호 씨

“오월 가족 애환...진심을 담았습니다”



1인극 '애꾸눈 광대'의 주인공인 이지현(사진 오른쪽)씨와 연출가 신동호씨. (광주문화재단 제공)

무대 위, 뺨에 복장을 한 애꾸눈의 사내는 계속 '누군가'를 찾아다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내는 마술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판소리 한자락을 선보인다. 물론 아무 서기에 전직 대통령들의 성대모사까지 이어지면 참 재주가 많은 사람이다 싶다.

'박수 없이는 못 사는' 우리의 주인공 애꾸눈 광대는 그렇게 한 시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관객들과 호흡했다. 객석의 관객들은 무대 위에 꽃을 바치는 등 찻김의 과정을 함께하며 배우와 하나가 됐다.

5월말부터 광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공연 중인 '1인극-애꾸눈 광대'를 함께 꾸려가고 있는 이는 이지현(62)씨와 신동호(50)씨다.

1980년 현장에서 계엄군에 맞아 한쪽 눈을 잃은 이 씨는 초대 5·18부상자동지회 회장으로 오랫동안 투쟁 현장에 있었다. 이번 작품은 그의 자전적 삶에 다른 유족들의 '오월' 이야기를 더해 구성했다.

"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많은 오월 가족들의 이야기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갖고 있다. 잃어버린 오월 공동체 정신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품을 기획했다. 예술적 향기를 더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찾아다녔고, 신동호 씨가 선뜻 나서줘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

모노 드라마는 만만찮은 내공이 필요한 장르다. 한 시간 가까운 시간을 혼자 버텨내

부상자동지회장 자전적 삶+유족 이야기
마술·성대모사·창작 판소리 어우러진 작품
10월8일까지 둘째·넷째 화요일 무료 공연

는 게 보통일이 아니다. '프로배우'가 아닌 그에게 힘을 실어준 신씨는 극단 토박이 전 대표로 '모란꽃' 등 '오월 연극'을 꾸준히 무대에 올려왔다.

"오월 싸움 현장에서 늘 봐왔던 분이 연극을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놀랐었다.(웃음) 오월 작업들에 대한 의무감, 채무감 등이 있어 당연한 하겠다고 했다. 전문 연극인도 아니고,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이 무대에서 하는 거라 무엇보다 '진심'이 가장 중요하

다고 생각했다. 성대모사, 마술 등 '장기'를 창작물에 녹여내는 과정이 힘들기는 했다."

작품의 줄거리는 이렇다. 1980년 5월26일 후배 박민철을 남겨두고 전남도청에서 도망친 그는 비겁자라는 생각으로 힘들어한다. 민철이를 잊지 못해 아들을 낳아 민철이라 이름 짓지만, 살아 남은 자의 부끄러움을 안고 투쟁 현장에서 자리를 지키는 사이, 아들은 가출하고 만다. 그는 광대가 돼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아들을 찾고, 그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된다. 극에 등장하는 스토리는 80% 정도가 실화로운 이혼, 아들의 가출 등은 허구적 장치다.

"광주 5월 행사는 보통 5월27일이면 끝나 버린다. 그게 많이 아쉬웠다. 5월 가족들의 애환을 그리고 싶었다. 예술적인 면에서는 완성도가 미흡할 수도 있는데, 꼭 해보고 싶은 작업이었다. 혼자서 관객까지 책임지고 가는 게 참 힘들다. 어쩔 땐 감정을 놓아버리고, 진짜 평평 울어버리고 싶다. 내가 아니라도, 오월 작품을 상상 공연하면 좋겠다. 광주에 오면 꼭 들려보고 가야할 그런 작품이 만들어져야한다."

신씨는 절대 '연기'를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보여달라고 이씨에게 줄곧 말했다. 속 깊은 곳에서 끌어낸 이야기들, 거기에 '진정성'이 있고 그 '진심'이 관객들을 움직일 거라 믿기 때문이다.

"거대담론으로 오월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5월을 겪은 이들을 돌보고, 챙기는 게 필요하다. 그들은 오월 투사이기도 했지만 누군가의 아버지, 남편, 오빠이기도 하다. 파탄나 버린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공연은 오는 10월8일까지 매달 둘째, 넷째 화요일(오후 7시30분) 관객들을 만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았으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670-749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꿈 꾸던 자리...내가 여기 있었음을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올 첫 공연 내일 문예회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꿈 꾸는 것'을 놓지 않았던 이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들은 고통이 다가올 때면 잠시 멈춰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희망'을 품고, 또 한발을 내딛었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단장 이어진)이 선보이는 'I was here-내가 여기 있었음'은 15년의 세월을 건너하며 꿈을 쫓았던 이들의 삶을 들려주는 음악극이다. 노래와 춤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는 너와 나의 이야기다.

'Wish to fly', '힐링 광주', '알을 품은 도시' 등 자신들만의 뚜렷한 색깔의 작품을 내놓는 소년소녀합창단의 올 첫 작품이다. 2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세상과의 소통', '가슴 뛰는 삶', '새로운 세상을 위해' 모두 3부로 구성된 작품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작된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작품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타원형의 무대에서 선보이는 첫 곡은 합창곡 '어린이를 위한 노래'. 이어 아카펠라 단체 '리얼 그룹'의 'I sing you sing', '아베마리아' 등을 통해 음악의 가장 큰 요소인 리듬과 멜로디의 아우러짐을 표현한다.

2부는 합창단에서 꿈을 키워 보컬리스트와 무용가가 된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 영화 '드림걸즈'의 삽입곡인 'listen' 등을 부르며 불같은 열정을 이야기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영화 '레 미제라블'에 삽입된 'One day more'와 'We shall overcome', 'I was here'를 통해 힘든 여건에서도 꿈을 놓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피날레곡은 '여러분'이다. 무대를 사랑했던 자신들을 언제나 꿈꾸게했던 건 '당신들의 환호와 격려였음을 노래한다.

오랜 기간 함께 호흡을 맞췄던 김성광씨가 함께 참여했다. 티켓가격 1만원. 문의 062-613-82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암 옥야리 고분은 분할 성토 방식

문화재청 축조기법 규명

영암군 유역 영암 옥야리 방대형 고분 축조 기법이 밝혀졌다.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범)는 영암군 옥야리 방대형 고분(方臺形·전남 기념물 제84호)은 회색 점토 덩어리를 이용해 방사상(放射狀·중앙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간 모양)·동심원상(同心圓狀·원의 중심이 일치하는 원)으로 구획한 공간에, 고분 주변 도랑(周溝·주구)을 만들면서

파낸 흙으로 단단하게 결구(結構)하며 쌓아 올리는 분할성토 방식으로 축조됐다고 20일 밝혔다.

10~30cm 크기의 회색 점토 덩어리(土塊)를 차곡차곡 위로 쌓아 방사선 형태로 5개의 구획선을 설치해 봉분의 종(縱)방향 구획을 마련한 뒤, 동심원상으로 2개의 구획선을 교차하게 설정해 작업 구간을 나눈 다음, 봉분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흙을 쌓으면서 봉분을 조성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영암 옥야리 방대형 고분'은 5세기 후반



영암군 중·하류지역에 조성된 마한(馬韓) 수장(首長) 급의 무덤으로, 봉분은 남북 길이 29.9m, 동서 길이 26.3m, 추정 높이 3.7m인 방대형이다. /김경민기자 kji@

한국판 '한여름밤의 꿈'

극단 여행자 21~2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한여름밤의 꿈'을 한국적 스타일로 재구성한 연극이 무대에 오른다.

극단 여행자는 21~22일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페스티벌 오!광주' 브랜드공연 마지막 공연작인 '한여름밤의 꿈'을 선보인다.

사랑에 뒤얽힌 젊은이의 소란과 해학적인 내용은 그대로 두고 한국의 흥과 신명, 한국 무용과 전통의상을 접목, 우리 색을 더했다.

등장인물의 이름은 한자를 이용해 한국적으로 바꾸고 원작의 요점은 도끼비로 묘사했다. '한여름밤의 꿈'은 2002년 제1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대상과 인기상, 2006년 폴란드 그단스크국제셰익스피어페스티벌 대상과 관객상을 수상했다.

21일 오후 7시30분, 22일 오후 4시. 티켓 가격은 2만원, 1만5000원, 1만원. 문의 062-670-746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 28석, 16석 료반비)

구분

평일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유스퀘어점 YONAMJA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홍골레
Yonggol
₩10,800

베이컨 카르보나라
Bacon Carbonara
₩10,800

허니고르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style crispy chicken steak
₩10,800

핫 스파이스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10,8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

입학문의 ▶ 062-605-1115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www.kwangshin.ac.kr

【 주요일정 】

- 1. 일반전형**
 - ① 원서접수 : 2013. 6. 24(월) - 6. 28(금)
 - ② 전 형 일 : 2013. 7. 4(목) 오전 10:00
 - ③ 합격자발표 : 2013. 7. 8(월) 오전 10:00
 - ④ 등록 기 간 : 2013. 7. 8(월) - 10(수)

▼ 대학원 과정별 모집정원 현황

대학원	과정	학 과	모집정원	전 공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3	-
	석사	신 학 과(Th.M.)	12	구약, 신약, 조직, 기독교윤리, 역사, 설교예배, 선교, 목회상담, 주경
	석사	신학연구과(M.A.T.)	2	-
신학대학원	석사	신 학 과(M.Div.)	15	-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12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상담교육

정통보수신학의 요람
59년 전통의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